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음 5월 1일) 제23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새만금 정책 발굴 · 현안 대응 온 힘

도, 정책포럼 위원 간담회  
추진현황 · 활성화 보고  
올 포럼 논의 아젠다 선정  
내부개발 현장 방문 진행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새만금 현장  
에서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 정책발굴과 주요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으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정책발굴  
및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  
과 논의를 위해 남궁근 위원장을 비롯  
한 포럼위원,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전  
북연구원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  
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새만금에 적용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와 인  
사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해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전문가협의체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제안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  
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되는 등 실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새만금 인프라 확충 등 내부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완성된 현재는 새만금 용  
지별 · 분야별 콘텐트를 개발하고, 구  
체적인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가 있어 기존 행 · 재정 분야 중심에서  
다양한 전문분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행정 · 투자유치 · 관  
광개발 · 수질환경 · 기반시설 등 5개  
전문분야로 확대하고 균형 있게 조정  
하여 16명 위원으로 재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새만금 정책포럼은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발제 및 논의, 위  
킹그룹 연구과제 자문 및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  
할을 맡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사업 추진현  
황 및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보고  
▲2019년 새만금 정책포럼 논의 아  
젠다 선정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현  
장 및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방문 순  
으로 진행됐다.

먼저, 위원들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  
청으로부터 새만금사업 현황과 주요  
현안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새만금 정책포럼의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 묘역 정화 봉사  
우석대학교 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익실호국원을 찾아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올해에 중점적  
으로 다룰 의제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벌  
였다.

토론에서는 '새만금의 제4차 산업혁  
명 전진기회'와 '웰빙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웰니스 산업과 연계한 새만금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등 2건을 올해  
년도 논의과제로 선정, 각각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인 구태연 위원과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인 김미  
자 위원이 과제수행을 주도하고, 하반  
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해 국내 최대 규모(18.7MW)로 조성된  
군산 우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현  
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수상태양광발  
전소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살펴보  
며 수질 오염 등 환경 파괴 우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끝이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재 조성 및 개발 사업이 진  
행 중인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세  
계제비리대회 개최예정 부지와 고군  
산군도를 비롯해 핵심 기반시설인 동  
서 · 남북도로 및 신항만 구축 등 내부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모습을  
둘러보았다.

이원택 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  
발공사의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새  
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새  
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중요한 시  
점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정책개  
발과 주요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  
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5면 - 세계제비리 협력 강화 워크숍

## 남원농악,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오늘 지정 예고  
보존회, 종목 보유단체로  
호남좌도농악 전형적 특징  
부들상모 제작기술 지정대상



호남좌도농악의 정통성을 지닌 남  
원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남원농악을 6  
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  
로 지정 예고하는 한편, 남원농악보  
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  
정 예고한다.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온전히 보존 · 전승하고 있는 남원농  
악은 금지면 웅정리(독우물)를 중심  
으로 한 '독우물 곳'에서 유래했으  
며, 현재 류명철 상쇠를 중심으로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악이 가진 단체예술로서의 전승  
특성상 현재의 남원농악보존회를 보  
유단체로 인정 예고함으로써 보존회  
에서는 집단 전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지정 대상이 되는 남원농악의  
기 · 예능은 악기연주, 판곡, 개인놀

이, 부들상모 제작과, 전문적인 농악  
다운 세련되고 정교한 악기 연주뿐  
만 아니라 군사농악적 성격을 보여  
주는 장대한 절차의 판곡, 그리고  
팬파리, 장구, 소고 등의 개인놀이까  
지 가치가 인정된 것이다.

또한 호남좌도농악의 전형적인 특  
징인 부들상모에 대한 제작기술까지  
지정대상으로 삼은 점은 의미가 특  
별하다고 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  
국에서 유일하게 전 읍면동에서 농  
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호남좌도농악  
의 대표인 남원농악이 국가무형문  
화재로 지정 예고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한다며, 남원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 있는 남원농악이  
더욱 잘 전승 · 보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중앙공모 선정 국비 확보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등... 전북도, 1609억원 확보

전북도는 5월 중에 노후거점 산업  
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여촌지역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 등 20개 사업이  
중앙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60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5월 중 선정된 사업들 중 주요 공  
모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자원의 가  
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으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

쟁력 강화 사업 등 2개 사업 국비  
1077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군  
산 · 정읍, 1065억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사업으로 전국 5개소 중 전북도  
는 2개소(군산국가산단, 정읍제3일  
반산단)가 선정됐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지  
자체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S등급)  
에 선정돼 재난안전교부세 1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결과 전북도가 시군, 교

육청,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실  
시하고, 시군대상 추진실적 종합평가  
실시와 기관평가 현장점검 및 추진상  
황 점검 실적이 우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